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방콕시민들의 반응

방콕사무소

후쿠시마 수산물을 바라보는 냉담한 시선

-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후쿠시마 수산물 홍보행사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취소되었다. 일본 정부와 태국 식약청은 행사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자 했으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 이번 행사는 태국 현지 무역회사들이 후쿠시마 해역에서 포획된 수산물 중 특히 넙치(Flounder)를 홍보하고자 기획한 것으로, 방콕에 소재한 몇몇 일본식당들과 협력하여 운영할 계획이었다. 행사는 3월 10일에서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들과 환경단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자 결국 무산되었다.



지난 2월 말, 후쿠시마 현에서 포획된 넙치를 소마 항구로 운반하는 모습

출처 : 재팬 타임스(japantimes.co.jp)

소비자와 환경단체들의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

- 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최초의 국가로 2018년 3월 1일, 130kg가량의 어류를 수입하였다. 그러나 태국의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산 어류를 공급받은 일본식당 목록을 공개하라며 수산물 수입을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태국 소비자와 외국인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식당 목록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모든 일본식당 출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관리가 필요해

- 태국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기준치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현재 태국에서는 국민건강, 특히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설탕세를 도입하고, 트랜스지방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태국에서 특정 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발생하면,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국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큰 타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잔류농약, 유해성분 등 식품의 안전성 이슈관리를 위한 수출업계의 다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출처 : www.bangkokpost.com, www.japantimes.co.jp